

전주시,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 개소

경기전 인근 2층 한옥건물 리모델링해 조성... 다양한 관광 정보·편의 서비스 등 제공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 정보와 휴식·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경기전 인근에 마련된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를 비롯한 관광 분야 기관·단체장, 인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 '여는 날' 행사를 가졌다.

전주한옥마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밀집하는 경기전 인근의 2층 한옥 건물을 리모델링해 탄생한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다양한 여행정보를 획득하고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건물 1층에는 기존 경기전 매표소 앞에 위치했던 경기전 관광안내소가 이전 배치돼 한층 업그레이드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경기전 관광안내소는 낡고 협소한 건물로 인해 무모차와 휠체어 대여 등 최소한의 관광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려웠다.

또한 '보관소' △유아 동반 관광객들을 위한 '수유실' 등 다양한 편의 시설도 배치됐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경기전 인근에 마련된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를 비롯한 관광 분야 기관·단체장, 인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 '여는 날' 행사를 가졌다.

건물 2층에는 관광객이 잠시 회의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정보 검색대, 굿즈 전시공간 등이 마련됐다.

특히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 2층의 경우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여행의 추억을 담아가는 인기 포토존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늘 문을 연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오늘 문을 연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0년 사회복지 공무원, 장기 기증 후 영면

김원교 김제 검산동 주민센터장, 교통사고로 인한 뇌사판정 중 말기중환자 5명에 모든 장기 기증

30여년간 사회복지사를 담당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왔던 한 여성이 말기 중환자를 위해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생을 마감했다.



이 결정에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폈던 고인의 평소 뜻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 전기로 큰 무하는 아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고 평소에도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헌신적으로 섬겨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김원교(여, 59세)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치료 중에 뇌사 판정을 받고 간, 신장 2개, 각막 2개 등 가능한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지난 21일 영면했다.

김제시 검산동 주민센터장인 김 씨는 지난 4월 1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사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슬픔 속에서도 삼십 년 동안 사회 관정을 받고 간, 신장 2개, 각막 2개 등 가능한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지난 21일 영면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후일도 출근해 환자들과 함께한 인물로 주민들과 동료직원들의 칭찬이 큰 인물이다. 김 씨는 작년에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며, 내년 삼십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터라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황흥필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결정으로 5명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식받은 분들도 송고한 뜻을 받들어 행복하고 나누는 삶을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맛배달' 고도화 추진

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 공모 최종 선정

전주시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이 기존 외식업 위주에서 제조업 구독 경제 영역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구독경제'란 일일직접을 정기적으로 지불한 소비자에게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로,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안정적인 판

로 공급 받을 수 있고 공급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의 경제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실시한 '2023년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역 소상공인 제품의 구독경제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판

로 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고도화를 추진, 소상공인의 구독경제시장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2억 원에 시비 2억 원을 추가 투입해 기존 운영해온 '전주맛배달' 사업을 기존 외식업 위주의 플랫폼에서 제조업까지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전주맛배달 앱 내 정기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독경제화 가능한 상품을 지속 발굴하는 등 지역 소비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형 구독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주맛배달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 전주'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에 전주맛배달과 소담스퀘어 전주 등 자체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지역 기반의 구독경제권이 점차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이락 기자

전주시설공단, 인라인 이용객 안전 예방 동영상 제작

봄바람 일렁이는 시기 전주인라인경기장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인라인스케이팅 장비 착용법에 대한 동영상 제작했다.

동영상은 안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인라인스케이팅 착용법과 헬멧 착용법에 대한 설명을 담았으며, 앞으로 안전한 스케이팅 문화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라인경기장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완산구, '재활용 수거 물품 교환사업' 시행

완산구는 환경친화적인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속 재활용물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완산구 19개동에 대해 '종이팩(우유팩, 주스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친환경상패'를 각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화장지 또는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 수거 물품 교환사업'을 24일부터 추진한다.

교환기준은 '종이팩 200ml 20매(화장지 1롤), 500ml 10매(화장지 1롤), 1000ml 5매(화장지 1롤) 및 폐건전지 15개

당량 화장지 1개씩, 아이스팩 5개 및 친환경 상패 2개당 종량제봉투(10L) 1매'으로 교환해 준다.

종이팩의 경우 물로 헹구고 펼쳐 말려서 가져오면 되고, 아이스팩의 경우 세탁 후 박스에 담아 가져오면 된다.

수거된 종이팩은 100% 천연펄프를 사용해 고급화장지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폐건전지는 철·아연·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어 유해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